



국기 계양대를 정비하자

정기연 전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우리나라는 관공서 청사를 비롯한 각급 학교와 마을 회관에까지 국기 계양대가 있다.

정부방침에 따라 국기 계양대에는 연중 상시 국기를 상징하는 태극기를 계양하고 경제를 상징하는 새마을기를 계양하고 사회를 상징하는 단체인(도·시·군·면)을 계양하고 문화를 상징하는 기를 계양하고 있는데 국기 계양대에는 깃대봉이 평균 4개가 세워져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기가 계양되고 있다. 기는 크기에 따라, 가로 4: 세로 3의 기폭에 도안이 되어 만들어졌으며 그 기를 통해 소속 의식이 길러진다. 국기를 통해 애국심을 기른다.

한국인은 태극기를 따라 뭉치고 미국인의 성조기 따라 뭉치고 일본인은 일장기 따라 뭉치고 애국한다.

민선 7기 지방단체장의 임기가 3년이 지나고 이제 1년 남았다. 3년간의 실적 보고회를 여는 지자체가 있는데 임기가 끝난 후 지역주민들이 공적비를 세우고 비문에 세길 업적이 있어야 한다. 그 업적이란 경제가 우선이다.

지난 7일 필자는 신안군청에서 민선 7기 군정 보고회를 한다 해서 참석했는데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를 앞세워 주

민소득증대 힘쓴 박우량 군수의 지도력이 돋보였다.

압해도에 신축된 신안군청 청사 앞에는 국기 계양대가 특별히 마련되어 있으며 거기에는 태극기, 새마을기, 전남도기, 신안군청 기가 계양되어 바닷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압해도에 있는 면사무소와 마을 회관의 국기 계양대도 잘 정비되어 있었으며 태극기 새마을기 면기가 계양되어 있었다. '한 일이 열 일'이라고 국기 계양대 관리 하나만 보고도 신안군이 앞장서 발전하고 있는 면모를 볼 수 있었다.

필자는 국기 계양대 관리상태를 조사하려고 전남 시·군 자치단체 관서를 탐방했는데 전남도청은 국기 계양대 깃대봉 3개에 태극기, 새마을기, 전남도기가 계양되어 있었고, 인근 전남 교육청은 국기 계양대 깃대봉이 3개인데 태극기, 전남교육청 기가 계양되었고 나머지 1개는 비워둔 채 있었다.

민선 전남 교육감이 경제 교육을 상징하는 경제기인 새마을기를 계양하지 않고 3년 임기를 보낸 것이다. 따라서 면사무소에는 경제를 상징하는 새마을기가 계양되어 있고, 교육하는 학교는 태극기만 계양되었고 나머지 깃대봉은 비어

있었다.

한편, 광주광역시청에는 국기 계양대에 깃대봉이 3개 있는데 태극기, 광주시청 기만 계양되었고 경제를 상징하는 새마을기는 계양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5개 구청과 동사무소의 국기 계양대에도 전의 새마을기를 계양하던 자리가 비웠으며, 광주시 교육청도 국기 계양대 깃대봉이 3개인데 태극기, 광주시 교육청 기가 계양되었고 나머지 1개는 비워둔 채 있으며 그에 따라 일선 학교도 맥을 같이 한다.

지자체가 되어 민선 단체장이 경제를 상징한 시책과 교육을 어떻게 했는가를 업적으로 남기려면 경제를 상징하는 경제 기부터 국기 계양대에 계양해야 할 것이다.

새마을기가 싫으면 새롭게 경제 기를 만들어 계양했어야 한다. 이제 임기 1년 남은 지자체 단체장이 국기 계양대 하나 소신껏 관리 정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선거에서 주민은 선택을 잘못한 것이다. 그러고도 다음에 또 단체장에 출사표를 낼 수 있겠는가?

필자가 돌아본 전라남도 시·군청의 국기 계양대 관리가 잘된 시·군은 나주시청, 신안군청, 강진군청이었다. 다른 지자체 군청에서는 국기 계양대 관리를 잘하는 시·군에 가서 본을 받아 지자체 단체장 임기 만료 전에 국기 계양대를 정비하고 주민이 참여하게 했으면 한다.

진보 성향의 광주·전남 교육청 교육감은 경제를 상징하는 새마을기를 계양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제73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국기계양 교육을 해야 하며 국기 계양대의 낡은 기는 교체하고 새롭게 국기 계양대를 정비했으면 한다.

칼럼

열길 물속 알 수 없는 하천변 다슬기 채취 위험천만

기고

김덕형 장성경찰정보안보외사과

도심 외곽지역이나 농촌지역 강변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종종 일부 주민들이 다슬기와 물고기를 잡기위해 바지를 걷어 올린채 물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하지만 수심이 불규칙한 개울이나 강가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안전을 무시한채 무작정 물가를 휘집고 다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기 쉽다. 이러한 행위는 매우 위험천만하기 때문이다.

언뜻 보기엔 수심이 그리 깊어 보이지 않지만 실상 물속에 들어가면 급경사나 깊이 파인곳을 만나 갑자기 발이 썩 빨려 들어가면서 급류에 휩쓸리는 아찔한 경우도 당할수 있다. 더욱이 물색이 탁한 곳일 경우 더욱 실제 물속 깊이를 가늠할수 없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수 있고 다슬기 채취장소가 사 람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한적한 곳일 경우 인명피해까지 야기할수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야간에 다슬기 잡

이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안전이 우려스럽다. 더욱이 상황판단력이나 순발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나 노약자들에게는 위험한 장소일 수밖에 없고 다슬기를 잡을 때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고 물속만 보고 앞으로 걷는 경우가 많아 강의 깊이를 잘 느끼지 못하는 점도 사고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다.

전문 채취꾼이 아닌 일반인이 다슬기를 줍다 중심을 잃고 물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수심과 유속의 변화가 심한 강과 하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강을 건너거나 하천의 깊이가 얕다고만만하게 봤다간 자칫 사고로 연결된다 는점을 유념하자.

다슬기 채취에 앞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갖추는 습관과 물에선 몇발자국 차이로 갑자기 수위가 높아질수 있다는 점을 잊지말아야 함은 물론 어린이나 노약자가 외진곳에서 다슬기 채취를 하지 않도록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온열질환 대비로 슬기로운 여름나기

우정근 서부소방예방안전과

최근 낮 최고기온이 36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낮 최고 기온이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폭염이 지속될 때는 일사병,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에 유의해야한다.

온열질환이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두통, 어지러움,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되며, 심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게 되므로 예방 및 대처법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야외활동을 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가벼운 옷을 입고, 햇빛을 막을 수 있는 모자나 양산

등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물을 자주 마셔서 수분을 자주 보충해줘야 하고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온열질환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환자를 옮긴다. 그 이후 환자의 피부에 물을 뿌리고 선풍기, 부채로 바람을 불어 체온을 신속히 낮춰야한다.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 또한 중요하며, 의식이 없을 경우 물이나 음료를 마시게 하면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있을 때만 수분을 보충해준다.

무더운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수칙 뿐만 아니라 음식물은 반드시 익혀 먹고 물을 끓여서 마시는 등 평소 건강을 위한 예방수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실천하여 슬기롭게 여름을 보내면 좋을 것 같다.

기고

새로운 치안 패러다임,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제

오 임관 보성경찰서장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동안 자치 경찰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2021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경찰은 새로운 치안 패러다임을 맞이하였다.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의 큰 변화로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이라는 3원 체제로 바뀌게 된 것이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경찰과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범죄 취약 환경 등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안의 현장성, 주민 밀착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 보호와 편익을 증진시키고 동시에 주민들이 직접 느끼는 체감 안전도 향상에 의의를 두고 있다.

자치경찰은 기존 경찰의 업무 중 생활 안전, 지역 경비·교통, 여성·청소년업무 등 주민밀착형 사무와 학교폭력, 가정폭력, 소년범죄,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밀접 수사를 담당하게 되며 지역에 맞

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생활을 안전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경찰이 지역 특색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주민들은 크게 3가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치안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 일원화로 인해 예산 운용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지자체 행정과의 연계 활성화로 긴급한 사건·사고에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경찰 활동에 주민의 요구가 신속히 반영된다.

주민안전 관련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주민의 대표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며, 기존 국가경찰 예산 외에도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게 됨으로서 주민들의 생활 안전에 꼭 필요한 교통신호기·cctv·가로등 설치 등 소요 기간이 단축된다.

마지막으로 범죄에 대한 체감 안전도가 향상된다.



고령화 지역, 도서·산간 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 약자·범죄 피해자의 지원 확대로 주민 안전 체계가 강화된다.

전남의 경우 고령화 및 1인가구 어르신인 증가하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종합대책」을 세워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도가 시행 초기인만큼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이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시·도에서 각자 특색있는 모습으로 자리잡아 대한민국만의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단단히 자리잡기를 바란다.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기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small>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small>			
<small>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small>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견뎌낼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